

'부처님과 인싸 되기' 수련회

법륜사, 삼독 이겨내는 지혜 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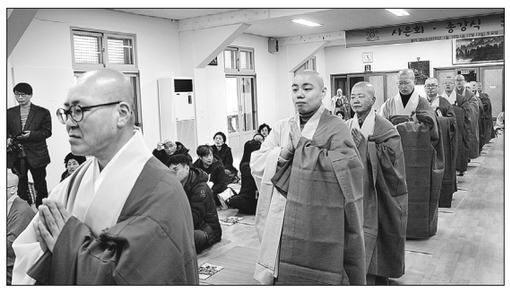
용인 법륜사는 1월 12~13일 '부처님과 함께 인싸 되기' 라는 주제로 어린이 겨울수련회를 개최했다. '인싸' 는 젊은 세대 사이에서 '인사이더(insider)' 의 줄임말로 통용된다. 각종 행사나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무리에 잘 섞여 노는 사람을 칭한다.

법륜사 겨울수련회는 △염주알 옮기기 △순수 지혜 찾기 △지혜의 성 쌓기 △욕심 버리기 △발우공양 △별자리 보기 △눈썰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어린이들이 지루하지 않게 부처님 가르침을 접할 수 있게 도왔다.

수련회에는 어린이 50명을 비롯해 지도교사, 자원봉사자 등 80여 명이 참가했다.

법륜사 템플스테이 지도법사 혜운 스님은 "아이들 사이에서 '인싸' 라는 표현이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따라서 탐진치 삼독을 지혜로 이겨내는 프로그램을 준비했다"며 "노력하지 않고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것,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꿈을 이뤄보자는 의지 등 여러 가치를 심어주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윤호섭 기자



"불교인재 청암인 거듭나길"

청암사승가대학 졸업식… 31명 배출

김천 청암사(주지 상덕)는 1월 19일 경내서 제33회 청암사승가대학 · 제11회 율학승가대학원 및 연구과정 졸업식을 개최, 총 31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청암사는 또한 계간지 〈청암〉 100호 발간 기념법회도 함께 봉행했다.

율학승가대학원 율주 지형 스님은 "졸업은 또 다른 시작이니 수행과 포교에 매진해 여법하고 정직한 청암인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계간지 〈청암〉은 1994년 창간호 발행 이후 25년 만에 100호를 발간했다. 100호에서는 "동문 스님들이 둘러앉아 경을 배우고, 차담을 하며 사연 많은 아픈 아홉 고갯길을 넘어왔다"며 100호 발간 영광을 청암사에 돌렸다.

이날 법회에는 청암사 율주 지형 스님과 주지 상덕 스님, 지역기관장 등 사부대중 300여 명이 참석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청년 · 불자 인식 높여 實기증 이어지도록"

Interview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 일면 스님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불자 의료지원 모금사업 및
대학생 골든벨 확대 개최로
조혈모세포 이식 60명 목표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교육기관인 (사)생명나눔실천본부가 불자 환자를 위한 모금회를 신설하고, 대학생 퀴즈대회 등 시민참여 사업을 확대해 홍보활동에 주력한다.

(사)생명나눔실천본부(이하 생명나눔)는 1월 21일 서울 생명나눔 법인 사무실서 신년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이사장 일면 스님〈사진〉은 "환자 치료비 특별지원, 전 지역본부 간 연계, 적극적인 홍보활동 장려를 목표로 삼고 생명나눔 홍보사업을 추진한다"고 말했다. 2019년 생명나눔 주요사업에는 △생명나눔 자비 모금회 △생명나눔 희망골든벨 퀴즈 확대 △생명나눔 홍보대상 시상 등이 포함됐다.

일면 스님은 주요 사업 가운데 올해 신설된 '생명나눔 자비 모금회' 를 강조했다. 스님은 "자비 모금회는 지원대상이 불자로 특정된 의료비 후원 사업으로, 불특정 대상자를 위해 모금하는 '이달의 환우' 사업과 달리 불자 환자로 지원대상을 한정한다"며 "사찰 등을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모금된 후원금으로 안타까운 처지에 놓인 불자들의 의료비를 월 1회 지원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명나눔은 현장 캠페인 진행 시 장기기증 희망등록과 자비모금 홍보를 병행하게 된다. 장기기증사업팀 등은 매월 초하루 또는 사찰 행사시 먼저 수도권에 위치한 사찰을 방문, 신도 대상으로 후원 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또한, 일면 스님은 대학생 퀴즈대회인 '생명나눔 희망골든벨' 을 확대 개최한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조혈모세포 희망등록을 주제로 한 희망골든벨은 지난해 한국교통대학교 간호대학 축제 때 처음 시행한 이후 실제로 홍보 효과가 있었다"며 "조혈모세포의 경우 만 18세부터 40세 미만까지 신청 연령제한이 있는 만큼 등록 예정자인 대학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퀴즈 형식이 제격임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백혈병, 혈액암 등 난치성 질환 바로알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희망골든벨은 올해 전국 3~5개 대학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생명나눔은 전국 5개 지역본부와 연계해 착한릴레이 참여 대학 중심으로 희망골든벨 행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생명나눔은 종립학교를 대상으로 생명나눔 동아리를 운영함으로써 청소년 대상 생명나눔 교육을, 군장병을 대상으로 한 기존 홍보교육 활동을 지속한다. 또한, 지자체 행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전 연령층 시민들의 인식 제고에도 힘을 쏟겠다는 입장이다.

일면 스님은 "우리 주변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 찾지 못해서 돕지 못하는 이들이 많아 안타까웠다"며 "희망등록에 대한 정보 전달과 홍보를 통해 장기기증 5,000명(조직기증 2,500명) · 조혈모세포 3,500명을 모집 목표로 하고, 지난해 52명이었던 조혈모세포 실기증자를 60명으로 확대 연계할 수 있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윤종원 수석, 청와대불자회장 취임

"화쟁과 文정부 지향점 일맥상통"

청와대불자회장에 윤종원 경제수석이 공식 취임했다.

청와대불자회는 1월 22일 서울 조계사 대웅전서 윤종원 경제수석의 회장 취임법회를 봉행하고,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 타인을 존중하면서 국가발전을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을 비롯한 각 종단 대표와 이기흥 조계종 중앙신도회장, 김상규 공무원불자연합회장 등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이날 윤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청불회는 1996년 창립한 이래 23년간 청불회원 간의 불심을 돈독히 하고, 불교계와의 가교 역할을 수행해왔다"면서 "한국불교에서는 대립을 조화시키고 화합하는 자세를 화쟁이라는 말로 표현한다. 포용을 통해 혁신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문재인 정부의 지향점과 일맥상통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모든 생명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는 자비행의 정신 역시 '다 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로 가는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사로 나선 원행 스님은 "대선사께서 깨달은 이후 무엇을 구하게 되었느냐는 후학의 질문에 '동쪽 마을에 가서 나무가 되고, 서쪽 마을에 가서 말이 되겠다' 고 답하셨다. 세상의 평화와 행복을 위해 인연에 따라 맡은 공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으로 새겨도 좋을 것"이라며 "대통령께서 신년기자회견서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은 새로운 문화를 요구한다고 했다. 한국불교가 그동안 걸어온 길과 일치하는 만큼 전통문화 보존과 계승, 민족문화 창달이라는 가치 실현을 위해 묵묵히 우리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용선 시민사회수석과 이기흥 중앙신도회장, 김상규 공불련 회장은 윤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면서 청와대불자회가 불교계와 한층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용선 수석은 "부처님께서 사부대중이 도탄에 빠지면 육바라밀 실천으로 중생을 구제했듯이, 지금까지 쌓아온 지혜와 경륜을 바탕으로 청불회를 비롯해 한국불교, 대한민국이 잘 사는 포용국가로 나아가는 데 혜안의 등불이 되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청불회 사무국장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한 박남현 前청와대 행정관은 법회에서 원행 스님으로부터 공로패를 받았다.

윤호섭 기자

조계종승가회, 신년하례법회

1월 21일 대구 원광사서 30여 명 참석



사단법인 조계종승가회 승가원(원장 정인)은 1월 21일 대구 원광사에서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법회에는 승가회 대승정 경보 대종사와 원로원장 월곡 스님, 종회의장 혜월 스님, 승가원장 정인 스님, 교육원장 일관 스님 등 회원스님 30여 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종단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심장병어린이 돕기 모연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올해 19회째



(사)대한국불교조계종 승가회는 1월 18일 마산 회원구에 위치한 총무원 불광사 법당서 '사랑실은 교통봉사대' 에 심장병어린이 돕기 성금 전달식을 봉행했다. 승가회는 매년 2회 나눠 성금을 전달하고 있으며, 올해 19회째를 맞았다. 승가회는 이와 함께 사단법인 출범을 알리는 창단식도 함께 개최했다.

이도경 부산지사장

원효 스님 유적 성지순례

한국불교법사대학 법사연수 55명 참가



한국불교법사대학(학장 지일)은 1월 19~20일 원효성사 행화유적 성지순례를 실시, 법사의 본분과 행원을 조찰보임하는 법사연수 구법학행을 개최했다. 55명의 참가자들은 원효 스님 탄생지부터 〈금강삼매경론〉을 강설한 황룡사지 등을 참배하고, 원효 스님의 사상과 행원이 오늘날 법사상에 요구되는 사명 등을 성찰하는 계기로 삼았다.

윤호섭 기자

옥천범음대학 세계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UNESCO)

2019년 신(편)입생 모집

2019. 02. 11 —— 02. 27

옥천범음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기관으로써 1968년 옥천범음회를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1973년 중요무형문화재 제50호 "범패"로 지정, 1987년 "영산재" 보존회로 단체 지정되었습니다. 2009년에는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불교의식의 전문성과 전통성을 높이고, 인재양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응시자격

입학과정 • 승려 및 포교사, 법사, 재가불자, 관련학과(음악,무용과) 등 일반인
편입과정 • 동일계열 상주권공 수료자
제출서류 • 입학원서(본교소정양식) 1부, 주민등록등본1부, 반명함판 사진 3매, 승적증명서 및 수계증 사본(해당자) 1부
전형일정 • 2019년 2월 11일 (월) ~ 2월 27일 (수)
원서교부 및 접수처 • 본교 행정처 및 홈페이지
특 전 • 출가승려(법계 미품수자)로서 학사변동에 이상 없을 경우 4년 과정을 정상수료 시 태고종승려에 한하여 중덕법계 품수 응시자격을 부여
• 성적우수자에게 각종 장학혜택 부여하고, 국내외 공연 시 우선 선발

신입 및 수료 과정

모집	교수내용	교수진	요일	모집인원
❶학년 [상주권공 I]	불공 / 시식 / 예불 / 상주권공 및 작법	김태호 스님	수	30명
❷학년 [상주권공II]	시련 / 대령 / 관욕 및 상주권공재의식 시연	조인각 스님	월	편입생 약간명
❸학년 [각배]	각배과정	이기봉 스님	목	
❹학년 [영산]	영산과정	조현성 스님	금	
불교의식 이론	불교의식(이론)	심만춘 스님	화	*
	영산재의 행위전승학습			

입학문의 03721 서울 서대문구 봉원사길 120
www.okchunbud.kr Tel (02)392-3234, Fax (02)392-3239

졸업자에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보존회 회원자격을 부여하고 기능이 인정되면 전수생으로 지정됩니다.

국가무형문화재 제50호 영산재 부설 옥천범음대학

UNESCO 세계무형문화유산 유네스코 등재